



에제키엘 다초모 목사가 살해당한 기독 교인들의 장례식에서 설교하고 있다.
© persecution.org

美 나이지리아 목회자 가족 9명 피살 규탄

미국 정부가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에스겔 다초모(Ezekiel Dachomo) 목사의 친인척 9명이 살해된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이지리아 정부에 기독교 공동체 보호를 위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국무부 아프리카국은 프랭크 가르시아(Frank Garcia)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가 최근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논의했으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차관보는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와 기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가해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지역 치안을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희생자 가족과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듯이 이 같은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3면에서 계속



'다윗의 장막 LA 2026'가 캘리포니아 말리부 페퍼다인대학교에서 진행됐다. © 다윗의 장막

말리부에 타오른 70시간 예배의 불꽃 '다윗의 장막 LA 2026'

교단과 세대를 뛰어넘은 연합 회개 · 회복 · 부흥 · 파송 이민교회의 새로운 도전

미주 한인교회들이 교단과 세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 LA 2026'가 캘리포니아 말리부 페퍼다인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24일 기준 약 640명이 등록했으며, 27일(월) 오후 2시부터 30일(목) 낮 12시까지 70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가 이어졌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역대하 7장 14절)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한어권과 영어권, 청소년과 다음 세대가 함께 미주 한인교회의 연합과 회복,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메인 집회가 열린 엘킨스 오디토리움에서는 찬양과 말씀, 중보기도가 쉼 없이 이어졌다.

레비스탕스, 한국 뉴모라비안, 더 크로스처치, 모퉁이돌선교회, 아르미온교회 찬양팀 등이 찬양과 예배를 섬겼다.

영어권 집회는 스탠퍼 채플에서 열렸으며 Upper Room 찬양팀이 참여했다. 한어권(KM)과 영어권(EM), 청소년과 다음 세대 연합 집회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등록부터 숙소, 식사, 셔틀, 현장 안내까지 운영 시스템을 갖춰 참가자들을 지원했다. 야간에는 숙소와 집회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매시간 운행했고, 의료·안전 지원팀도 상시 대기하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첫날 일정은 오후 2시 개회예배로 시작됐으며, 민종기 목사가 설교했다. 이어 이상훈 목사(미성대 총장)의 '새로운 방향',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교회)의 '다음 세대',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의 '진정한 회개'를 주제로 밤 12

시까지 집회가 이어졌다.

개회예배 설교자로 선 민종기 목사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삼하 24:15-2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민 목사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의 회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은 사건을 통해 개인의 회개와 순종을 넘어 공동체적 회개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훈 목사는 누가복음 13장 18-21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생명력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사회, 국가 전체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손경일 목사는 누가복음 5장 5-11절을 본문으로 “성공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눴다. 손 목사는 새누리교회가 스탠퍼드대학교와 구글 사이에 위치

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는 '성공'이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닌, '성숙'이라고 강조했다.

첫날 밤 철야기도에서는 이수호 목사가 사사기 17장 2~6절을 본문으로 '회개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가스 경보기를 예로 들며 “화재가 났을 때는 울리지 않고 화재가 없을 때만 울린다면 그 경보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신앙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움직일 때는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디 한기자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 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 T 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NICHÉ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하나님은 땅을 로케이션하고 사람을 캐스팅하신다

교회 회복과 선교를 위한
7월 연합기도성회
윤학렬 감독 초청 간증집회

7월 26일(주일) 오후 4시, 평화교회(김은목 목사)에서 윤학렬 감독을 초청해 간증집회를 열고 영화 ‘부흥’을 상영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가 주최하고 평화교회와 남가주 교협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교회회복과 선교를 위한 7월 연합기도성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윤 감독은 약 2년 7개월 동안 5대륙 70여 개 도시를 방문하며 아주사 거리, 애즈베리, 브라운스빌, 휘튼, 보스턴 등 세계 부흥의 현장을 필름에 담았다.

기도성회는 최훈 목사(교협 총무)의 사회로, 조준석 목사(교협 음악위원장)의 찬양으로 힘차게 문을 열었다. 송금관 목사(교협 부회장)가 대표기도하고, 윤학렬 감독의 간증이 이어졌다.

윤 감독은 영화 용어인 ‘캐스팅’과 ‘로케이션’을 빗대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섭리를 설명했다.

“캐스팅은 배우를 선택한다는 뜻이고, 로케이션은 땅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하나님도 로케이션과 캐스팅을 하신다. 다메섹 도상을 로케이션하시고 죄인 중의 죄인을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우신다.”



7월 연합기도성회가 평화교회에서 열렸다. 윤학렬 감독의 간증집회 후 단체사진을 찍었다. ©기독교일보

윤 감독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한국 사회의 영적 상황을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음의 땅으로 선택하셨다고 설명했다.

“류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나온다. 먹을 것이 없으니 그만 큼 척박한 눈물의 땅이었다.”

“정조 대왕 당시 조선 왕실과 국가가 주관하는 제사의 총 횟수는 1년에 약 347회에 달했다. 왕비는 누에고치에게 절하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로케이션하시고, 사람을 캐스팅하셨다고 설명했다.

“150년 전에 말씀의 불이 떨어졌다. 언더우드, 로제타 셔우드 홀 같은 당대 최고의 청년들,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 불을 받은 청년들이 수많은 종족을 건너뛰고 한국 땅을 밟았다. 루비 캔들릭 선교사는 자

기 심장이 수천 개 있다면 조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썼다.”

그는 영화 ‘부흥’ 촬영을 위해 전세계 ‘부흥’이 있던 곳을 찾아다니는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많은 곳이 성별 자기 결정권으로 인해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전했다.

이어서 길선주 목사의 통화 사건을 통해 한국인의 기도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길선주는 관우를 신으로 모시던 자였다. 그가 운영하는 한약방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 그러다 천로역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저주 받은 인생,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생명

윤 감독은 이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했다.

“저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생명이었다. 가정을 가진 아버지가 일탈을 해서 어머니가 저를 갖게 됐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폭언을 먹고 자란, 말을 심하게 더듬던 아이였다. 제 직업은 코미디 작가였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울음과 슬픔과 상처, 저주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이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업 실패 이후 금식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 성경을 펼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깨닫게 됐다고 간증했다.

윤 감독은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을 관통하는 사명을 한민족에게 주었다”며, 바디메오의 기도, 수로 보게니아 여인의 간청 같은 그 간

절함이 한민족의 영적 DNA라고 강조했다.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가슴 깊은 곳에 슬픔이 있다. LA 교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 ‘너희 조국을 위해 기도하라.’”

2년 7개월 간 70여 도시 부흥의 현장 기록

이어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흥’이 상영됐다. 영화는 윤 감독이 다큐멘터리 ‘부흥’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2023년 2월 윤 감독은 교회 집사들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애즈베리 대학교 부흥 현장을 방문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것이 영화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다.

윤 감독은 그 부흥의 현장과 그 부흥을 경험한 학생들과 신학자들의 증언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 학생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떠날 수 없었다”며 “4시간, 11시간, 심지어 14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모든 부흥의 본질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김대준 목사(교협 수석부회장)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김은목 목사의 봉헌기도와 축도로 이날 연합기도성회가 마무리됐다. 토마스 맹 기자

에브리데이교회 헤세드 장학금 수여식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가 미래 목회자를 격려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헤세드(Hesed)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헤세드 장학금은 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손창민 목사는 장학예배에서 “최근 신학교 신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에브리데이교회는 시대적·교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신학생들이 있기에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에브리데이교회가 헤세드 장학금을 신학생들에게 수여했다. © 에브리데이교회

올해 헤세드 장학생으로는 김주원 목사(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를 비롯해 총 8명이 선발됐다.

장학생들은 장학금 수여와 함께 4박 5일 일정의 ‘헤세드 트립

(Hesed Trip)’에도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 서부의 건강한 교회들과 캘리포니아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며 목회적·사회적 견문을 넓히고, 재충전과 쉼의 시간을 가졌다. 김민선 기자

용기장이 선교단 초청 찬양예배

용기장이 찬양선교단 초청 찬양예배가 오는 8월 9일(주일) 오전 11시 LA 베이직교회(이선기 목사)에서 개최된다.

용기장이 찬양선교단은 복음성가와 현대적인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온 대한민국의 찬양선교단체이다.

1980년대부터 다양한 예배와 집회, 교회 순회, 국내외 선교 사역을 이어오며 수많은 성도들에게 찬양을 통한 은혜와 회복을 전해 왔다. 대표곡으로는 ‘영원히 찬양드리세’, ‘예수 님 기원해’, ‘나의 등 뒤에서’, ‘복음으



로 돌아가야 할 때’ 등이 있다. LA 베이직 교회: 34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강태광 목사의 하박국과 그의 하나님

출판감사예배

• **일시:** 2026년 8월 9일 오후 5시

• **장소:** 미주 평안교회 (박병열 목사)

• **주제:** 하박국을 어떻게 읽을까? *하박국 전체를 살피는 시간

• **주관:** World Share USA 바나바 사역팀

• **후원:** 성시화 운동본부, 청교도 기도운동, 한기총(남가주 지회) KAFSP, 세기모 서부지회, 이승만기념 사업회, 한인군목회, 월드쉐어 여성 선교 합창단, CBS 중창단

이 책의 수익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예배 후 하박국 퀴즈대회 예정!

저자 **강태광 목사**
- World Share USA 대표,
- 세계 교육선교회 COREA 대표

이사장 **이동연 목사**

후원이사장 **황인상 목사**

실교 **송경명 목사**

격려 **강순영 목사**

격려 **최희왕 목사**

축사 **박병열 목사**

축사 **심선민 목사**

축사 **김은목 목사**

서명 **양정선 목사**

진행 **민경명 목사**

1부 사회 **김명구 목사**

월드쉐어 USA는 우크라이나 전쟁터,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수리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 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70시간 기도회... “신앙의 알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1면 기사 <다윗의 장막>에 이어서
그러면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철야기도가 이어진 가운데 제임스 최 목사(한국명 최효석·Kalam Japan)가 고린도전서 15장 9-11절을 본문으로 ‘선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둘째 날 첫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오전 집회에서는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말씀의 회복’, 지용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가 ‘기도의 회복’, 최원일 목사(인랜드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오후에는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가 ‘이민교회’, 가명훈 목사(토렌스조은교회)가 ‘관계의 회복’, 고태형 목사(치노힐스 선한목자교회)가 ‘정결함의 회복’,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와 박호종 목사(더크로스처치)가 ‘회복과 부흥’을 주제로 집회를 이어나갔다.

제임스 최 목사는 초대교회에서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선교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간결하게 짚으며, 오늘날 교회 내부의 분열이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력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세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13절을 본문으로 미국의 전설적인 노동자 존 헨리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했던 시대와 그 사상이 초래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 그리고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와 바르멘 선언을 차례로 소개하며 ‘말씀을 듣는 자세’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한 인간 중심적 성경 이해가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로마서 1장 16절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란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칼 바르트가 정리한 ‘말씀의 세 가지 형태’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도 휴대전화로 쉽게 들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과연 내가 말씀을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도전했다.

최원일 목사는 요한계시록 5장 11~12절을 본문으로, 로마제국의 핍박 가운데 놓여 있던 아시아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상의 예배 장면을 통해 소망을 붙들게 됐다고 설명하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국윤권 목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기뻐 춤을 추었던 모습을 언급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를 찢어 휘장을 가르실 때 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고태형 목사는 고린도전서 5장 1~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미국의 스포츠계와 교단, 신학교 안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 교계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적 가치 위에 바로 서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원래 PCUSA 소속 교회였다. 저희가 목회하는 동안 미국장로교가 동성애자 성직 안수와 결혼의 정의를 바꿀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PCUSA가 동성결혼을 허용한다고 헌법을 바꾼 것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닷새 전이었다. 교회가 세상의 법원보다 더 먼저 동성애자 성직 안수와 결혼의 정의를 바꾸었다.”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고린도전서 5장은 사랑이라는 말로 죄를 방치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적 사랑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을 환영해야 하지만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는 사람은 품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를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고 목사는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의 의미를 비교하며,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그리스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



다윗의 장막 LA 2026 참가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 미주침례신문사 제공

기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높은 가치를 화평으로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무슬림의 화평과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은 다르다. 무슬림은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 살로를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 땅을 바꿔가는 것이다. ‘남편이 변화되면 내 가정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내 자식이 바뀌면 내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무슬림이다.”

둘째 날 마지막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박호종 목사는 나무뿌리로 연명해야 하고, 머리카락을 수출하던 한국에 대해, “기도와 금식과 예배로 어둠을 뚫은 유일한 민족”이라며,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를 붙들었던 이유에 대해 나누었다.

“제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의 임재가 제게서 떠나갈까봐 기도를 시작했다. 제가 중 3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충격으로 곤고함이 밀려왔다. 방향이 시작되었을 때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자 곤고함이 사라졌다. 이게 떠날까봐 잠만 나면 기도했다. 지금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17세 때 목소리이다. 예수님이 떠나갈까봐 기도를 붙들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선포된 메시지와 70시간 동안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찬양과 예배로 섬긴 찬양팀과 예배팀의 헌신, 참여자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도의 불꽃은 계속 타올랐다. 이어진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집회에서도 예배와 기도는 계속됐다.

이번 집회에는 교회와 선교단체, 신학교와 선교기관, 언론 등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했다. GBC와



레비스탕스, 한국 뉴모라비안, 더크로스교회, 모통이돌선교회, 아름다운교회 찬양팀 등 여러 교회와 단체의 예배팀이 함께했다. © 미주침례신문사 제공

CABC를 비롯해 새누리교회, 토렌스조은교회, 더크로스처치, 아름다운교회, 충현선교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올림픽장로교회 등 여러 교회와 모통이돌선교회, 레비스탕스, 씨

드선교회, CMF선교원 등 선교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월드미션대학교, 미주성결대학교, KCMUSA, 기독일보 등이 함께하며 교단과 세대, 언어를 넘어선 연합의 의미를 더했다.

올림픽장로교회 부흥회에 초대합니다.

2026 올림픽장로교회

부흥회

주제 예수 닻기를

Loving and Serving L.A.

요한복음 13:34

강사 | 이은상 목사

달라스세미교회 담임

8월7일 금요일

오후 7:30

8월8일 토요일

오전 6:30

오후 7:00

8월9일 주 일

오전 9:00

오전 11:00



주소 | 3055 Wilshire blvd, #220 Los Angeles., CA 90010

전화 | 213.387.1700

 올림픽장로교회

담임목사 이 수 호

olympicch@gmail.com

 @OPC.IN.LA

 @OPC_NEXTGEN

올림픽장로교회 오시는 길



주차장 안 내

건물 바로 옆 Westmoreland Ave. 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생존과 번영의 토대” 이승만 서거 61주기 추모

이준근 박사, "건국의 네 기둥은 기독교 ·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 · 한미동맹"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61주기 추모식 및 특별강연회가 지난 18일 오후 4시, LA 한인타운 소재 식당에서 열렸다.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지회(회장 박요한, 이사장 박형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이정현 목사의 개회 기도를 시작으로 찬송, 조인영 장로의 기도, 장은희 권사의 성경봉독(시편 33편 12절), 송정명 목사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추모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와 미국 국가 제창에 이어 김재련 수석부회장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약력을 소개했다. 박형만 이사장이 추모사를 전했으며, 박요한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건국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에도 자유와 독립의 신념을 끝까지 지켰으며,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대한민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61주기 추모식 및 특별강연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국을 건국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과 안보의 중요한 축이 된 한미동맹의 토대를 마련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건국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오늘 추모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3부에서는 국제정치학자인 이준근 박사가 ‘국제 정세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본 선각자로 평

가하며, 건국의 기반을 세운 핵심 정신으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제시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먼저 통찰했다”며 “우리 힘이 부족하면 자유 진영의 가장 강한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외교를 펼쳤고, 그것이 오늘의 한미동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자유진영의 냉전 체제에 확고히 편입됐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 박사는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끼리 맺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으로 지금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을 폭넓게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이자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협력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젊은 세대는 자유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개인의 책임과 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유인”이라며 “사회주의는 개인의 책임보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복적으로 실

패해 왔다. 기업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이며, 자유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됐다. 사도행전의 나눔은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이지만, 사회주의는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 박사는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일은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정세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중국이 통일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독일 통일 역시 미국의 지원과 서독의 국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주둔하는 동맹군”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며 “건국 당시 설계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 경영 철학과 건국 정신을 계속 배우고 계승해 나아가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맥 기자

김명일 목사 초청 주일예배 및 간담회

한길교회(고광선 목사)는 8월 2일(주일) 중국 지하교회 사역자 김명일 목사를 초청해 1부, 2부 주일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 30분에는 소예배실에서 예배 후 간담회를 갖는다.

김 목사는 한길교회가 합병되기 전 세계로교회 시절 한국삼 목사 밑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으며, 이후에도 교회와 교제를 이어왔다. 한길교회는 “목사님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동료들에 대한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신다”며 김 목사와 시온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제8회 윤동주 미주문학상 대상에 나두섭 시인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가 주최하는 ‘제8회 윤동주 미주문학상’ 대상에 나두섭 시인의 「이 몸이 새라면」이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 특별상에는 최재준 시인의 「하늘의 주소」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 공모에는 미주 각지에서 총 130편의 시가 접수되었으며,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 가치인 「하늘 사상」과 「자아 성찰」을 현대적 시어로 계승한 작품을 중심으로 면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사위원단(백순 심사위원장, 서윤석 시인, 노세웅 시인)은 단순한 기교보다는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통



나두섭 시인.

찰, 따뜻한 시선, 진정한 성찰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나두섭 시인의 「이

몸이 새라면」에 대해 “새라는 존재를 빌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의 진실과 사랑을 담백하고 절제된 언어로 담아냈다.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계승했다”라고 평가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최재준 시인의 「하늘의 주소」에 대해서는 “자연의 길과 인간이 만든 길이 충돌하는 비극을 이미지와 여백으로 섬세하게 포착했다. 문명과 생명의 관계, 상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 작품이다.”라고 평가했다. 올해 응모작은 전반적으로 수준

이 높아 심사위원단이 고심을 거듭했다. 박희옥 시인과 김소희 시인의 작품도 최종 심사까지 올랐으나 어렵게 선정되지 못했다.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는 “윤동주 미주문학상이 미주 한인 문학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응모 시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9일(주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리는 연세대학교 미주총동문회 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윤동주 미주문학상 위원장 박창모 박사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센터메디컬그룹

TOP7

미스트롯4

많은 관심과 참여로
티켓이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켓은 소진되었지만 티켓이 취소가 발생한 경우
웨이팅 리스트에 등록된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공연일시 8월 22일 (토) 오후 2시 & 6시 30분
총 2회 공연



공연장소 Wilshire Ebell Theatre 440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바쁘신 가운데서도 뜨거운 성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함께하는 미스트롯 4 TOP 7의 감동 무대,
공연 당일날 뵙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센터메디컬그룹 문의

888 – 847 – 3098

문의시간 : 9:00 AM ~ 5:00 PM

우울증 · 공황장애는 남일? 교회와 선교 현장 가까이에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햇불재단(원장 유승현)은 20일 서울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2026 햇불 목회상담세미나’를 개최하고 우울증과 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돌봄 방안을 모색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정신의학과 기독교상담, 목회적 돌봄의 관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고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전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최은영 기독교상담 교수, 이진호 목사(대구순복음교회)가 나서 각각 정신의학적 이해와 상담, 목회적 접근을 제시했다.

전우택 교수는 우울증이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울한 기분과 흥미 상실, 수면장애, 피로감, 죄책감, 집중력 저하, 반복적인 죽음이나 자살 생각 등 여러 증상 가운데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우울증으로 진단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병리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 어려움



2026 햇불 목회상담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햇불재단

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상담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울증은 혼자서 힘과 의지로 치료되지 않으며 재발 예방이 중요하다”며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교수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온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하며 신앙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로 돌아가 다른 누군가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진호牧사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 방안으로 ‘치유의 삼각형’을 제시했다. 교회는 영적 돌봄을, 가족과 친구는

관계적 지지를, 병원과 상담 전문가는 전문적 치료를 담당하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목회자는 심신증과 정신질환, 귀신 들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며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와 의료기관, 상담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정신질환과 자살 예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우택 교수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뉠라 말하지 말고 ‘자

살할 생각이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죽으려고 생각하느냐’고 직접 물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자살 계획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 충동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며 교회가 자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햇불재단은 “우울증과 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는 더 이상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 선교 현장 가까이에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목회와 기독교상담, 정신의학이 함께 아픈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현 원장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듯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적절한 돌봄과 회복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사역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조속히 국내 송환해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요구했다.

살롬나비는 27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조속히 데려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의한 북한군 포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지적돼 왔다”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2명을 조속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인도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살롬나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뜻을 모은 점을 언급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한국 귀순 의사를 공개적

으로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언론 인터뷰와 자필 편지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만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살롬나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과 북·러 송환 불허를 명확히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로의 처우와 관련한 제네바 제3협약은 본국 송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군 포로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포로교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최근 이뤄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3차 포로교환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열린 제36차 북측통일 컨퍼런스 당시 강동완 교수(왼쪽)가 한 청년과 함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들의 모습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다.

살롬나비는 그러나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하

며, 정치적 고려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제송환 시 고문과 학대 우려를 제기한 점도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언론인 나탈리아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장이 과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소개하면서, 외교 당국이 우크라이나 측과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이후에도 아직 최종 결정과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호,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김

■ 발행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이사장 : 풀킴

살롬한의의원

Diamond Bar 살롬한의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909) 860-4260
cell:(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22640 Golden Sprin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자신보다

가족 걱정을 늘 먼저 하는 당신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SMG는 진료 이전에
당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사와 병원,
보험 네트워크를 연결한 이유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30년동안 당신을 지켜온 SMG 기록

5,500명의 의료진 | 폭넓은 병원 및 보험사 | 우수 의료 제공자



800.611.9862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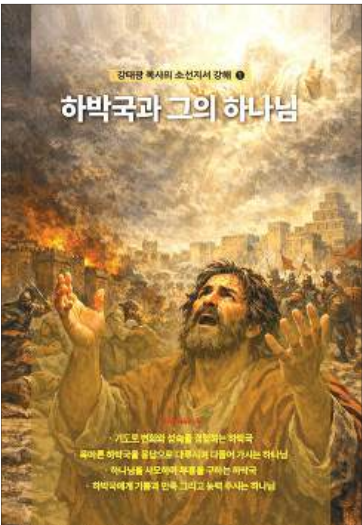
강태광 목사, 『하박국과 그의 하나님』 출간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

출판감사예배 8월 9일 (주일) 5시 미주평안교회

본지 칼럼리스트로, 또 청교도신 앙회복운동본부 사무총장, 다민족 연합기도운동 사무총장, 남가주중 보기도팀연합기도운동 사무총장으로 남가주 교회들을 활발히 섬기고 있는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가 최근 신간 『하박국과 그의 하나님』을 펴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손에 잡히는 크리스천 행복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신약 인문학, 기독교 문학 산책 2〉, 〈기독교 문학 산책〉 등 기독교 인문학 시리즈를 출판해 온 그가 이번에는 설교집으로 독자들을 찾아왔다.

이번 출판을 기념해 이번 신간을 집필하게 된 계기와 이 설교집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8월 9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박병열 목사)에서 열릴 출판 감사예배 및 북 콘서트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박국과 그의 하나님〉. ©생명의무물가

질문: 최근에 책을 출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월드쉐어 USA 사역을 비롯해 남가주 교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또 한국과 미주의 여러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으로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러한 사역과 집필을 꾸준히 병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 일상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 읽고 쓰는 일을 합니다. 저에게는 삶의 모든 경험이 글의 소재이고 설교 자료입니다. 저는 매일 한편의 칼럼을 쓰거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 틈만 나면 읽습니다.

저는 설교가 있건 없건 매주 한편 이상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옛날에 했던 설교를 Update하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Contemporize(현대화)하고 Contextualize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곳(Then & There)의 사건과 말씀을 지금 여기(Now & Here) 말씀으로 해석하며 적용점을 찾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 설교를 위한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설교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게으름파우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설교를 자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매주 찾아 듣습니다.

또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쉬지 않으려 합니다. 알팍한 수준의 연구이지만 한달 동안 성경 한권에 집중합니다. 성경 한권을 조감할 수 있도록 살피려 합니다.

요즘은 예배소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개론부터 전체 문맥 그리고 본문에 담고 있는 신학적 고민들, 난해 구절 등을 살핍니다. 이렇게 살피는 것은 목회자 혹은 설교자로 본문을 살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매우 즐겁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 윤곽이 정리되면 설교를 준비합니다. 청중을 그리며 미리 미리 준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고, 늘 준비된 설교가 서너편 준비되어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잘 쓰려고 노력합니다. 주일 설교라면 원고를 전주 금요일 밤 12시까지 완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질문: 또 하박국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은혜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우선 하박국 전체를 살펴본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박국은 3장 1절 2절, 16절~19절만 설교했습니다. 2장에 다섯번 등장하는 ‘화 있을 진저’ 즉 오종화를 살피며 하나님의 심판과 3장 3절에서 1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설명하는 부흥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나 3번 등장하는 ‘셀라’를 살핀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이런 것들을 다 담아 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강태광 목사가 최근 설교집 〈하박국과 그의 하나님〉을 출간했다. ©기독교일보

질문: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지속해오셨습니다. 이 설교집에도 인문학적 통찰이 담겨져 있나요?

원래는 인문학으로 읽는 하박국이라는 제목으로 인문학적으로 끌려고 했는데, 설교집으로 전환하면서 인문학적 접근을 잘 못했습니다. 하박국의 인문학적 접근은 하박국의 역사적 배경을 좀더 살피고, 하박국을 간구, 선언(응답) 그리고 찬양(시) 등 다양한 문학 양식을 살피는 것입니다.

질문: 설교집 본문을 하박국으로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박국에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서 하박국을 설교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설교 원고들을 매년 정성껏 준비했고 정리해서 출판했습니다.

질문: 하박국서가 쓰여지게 된 역사적 배경, 저자 등도 소개해 주세요.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떤 신앙의 질문과 고민을 지닌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박국에는 왕이나 다른 역사적 자료가 될 만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피면 첫째 바벨론의 침공과 바벨론에 의한 멸망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벨론(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에 분노하고(1장 2절~4

질문: 하박국은 "왜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목사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것도 기도합니다. 아픔이 많지만, 부흥도 기도합니다.

질문: 하박국서의 유명한 구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2:4)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전,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 구절이 선포되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묵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인용됩니다. 하박국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고난과 아픔을 이기라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각 텍스트에서 요구되는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칭의의 원리)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믿음 (복음의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고난을 이겨내는 '인내'로서의 믿음 (삶의 태도)을 의미합니다.

하박국과 신약 구절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을 신뢰하며 맡기는 믿음입니다.

질문: 이번 신간 출판감사예배와 북 콘서트의 일정과 행사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출판감사예배는 8월 9일 오후 5시 미주 평안교회(박병열 목사)에서 드립니다. 행사는 하박국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3S를 지향합니다. Simple, Short, Succinct 짧고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내용은 1부 예배를 드립니다. 25분 예상합니다. 2부 나눔입니다. 축사, 서평 등등이 있습니다만 30분입니다. 3부 작은 음악회입니다. 합창단 찬양, 독창 그리고 7080 가스펠송 신일통과 하박국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인터뷰 정리: 주디 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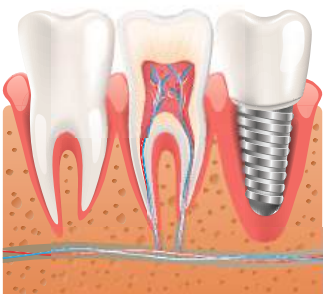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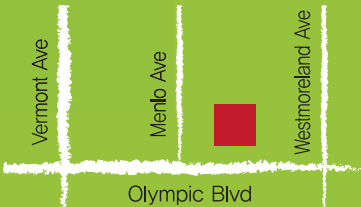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파키스탄 법원, 납치된 기독교 소녀 양육권 ‘제3자’ 인계 논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사법부가 무슬림 남성에게 납치돼 강제 개종과 혼인을 당한 16세 기독교 소녀의 양육권을 친가족이 아닌 생면부지의 무슬림 여성에게 인계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7월 22일 보도했다. CDI는 해당 판결이 피해 아동이 강압에 의해 조작된 진술을 했다는 이전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이며 현지 기독교계와 인권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는 하니프 하미드 변호사에 따르면, 편자브주 카네발 지역에 거주하던 16세 학생 메흐나즈 나딤은 지난 5월 15일 자택에서 무슬림 남성 안사르 사이드에게 납치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즉각 관할 경찰서에 파키스탄 형법상 미성년자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용의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기지국 데이터를 추적한 끝에 지난 5월 29일 시알코트의 한 호텔에서 용의자 사이드를 체포하고 메흐나즈를 구조했다. 하미드 변호사는 구조 직후 진행된 의료 진단에서 성적 학대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결혼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납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구조된 피해자의 법정 진술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6월 4일 첫 번째 심리를 맡은 자파르 이크발 치안 판사 앞에서 메흐나즈는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사이드와 혼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하미드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및 개종 동의 능력이 없으며, 납치범의 협박에 의한 강압적 진술이라고 변론했다. 이크발 치안 판사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했다. 그는 이 사건이 편자브주 강간 방지법 및 아동결혼제한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용의자를 구속하고 메흐나즈를 정부 운영 보호 시설로 인계했다. 이후 보호 시설에서 아버지를 면회한 피해자는 자신이 용의자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건은 두 번째 심리에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지난 6월 23일, 메흐나즈는 돌연 보호 시설 퇴소를 요청하며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떠나게 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하미드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연고가 없는 타인에게 맡길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무함마드 소하일 안준 치안 판사는 다음 날 소녀를 사지아 마이라는 무슬림 여성에게 인계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여성은 피해자와 어떠한 혈연이나 법적 관계도 없는 제3자였다.

하미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1890년 제정된 보호자 및 피후견인법을 명백히 위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의 양육권을 친부모나 적합한 친척에게 복원하거나 국가의 보호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넘겨줄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최근 편자브주가 선포한 아동결혼제한법 개정안의 취지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난 5월 11일 발효된 편자브주 아동결혼제한법 개정안은 남녀 혼인 최저 연령을 18세로 상향하고, 모든 법적 판단의 최우선 고려 사항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납치나 강압이 연루된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표면적인 동의는 양육권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미드 변호사는 앞선 재판부가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로 판단해 국가 보호 조치를 내렸음에도, 다른 판사가 뚜렷한 근거 없이 피해자를 낯선 인물에게 인도한 것은 사법 시스템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아이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며, 이번 양육권 인도 명령에 불복해 파키스탄 라호르 고등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파키스탄 내 소수 종교 공동체 미성년자를 겨냥한 납치, 강제 개종 및 조혼 사건은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 기독교 소녀 납치 및 강제 개종 피해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며 국제 인권 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최승연 기자

베트남 중부 기독교인 119명 단속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자라이(Gia Lai)성에서 올해 상반기 기독교인 119명이 종교·소수민족 자결을 주장하는 단체와 연계했다는 이유로 당국의 단속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CSW)는 베트남 일간지 푸오이째(Tuổi Trẻ)를 인용해 베트남 경찰이 기독교인 119명을 확인·조사해 조치했으며, 피고인 4명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건 2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문제 삼은 활동은 ‘피억압민족 해방통일전선’(FULRO)과 정부가 ‘데가 개신교’(De Ga Protestantism)라고 부르는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치는 자라이성 경찰청장인 레 쩡 난(Le Quang Nhan) 소장이 지난 20일 공안부 장관 르영 탐 쩡(Luong Tam Quang)과의 회의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CSW에 따르면 베트남 국영매체는 이들 두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중부 고원지대의 분리주의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FULRO는 1960년대 창설된 단체로, 중부 고원지대의 몽타냐르(Montagnard)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무장투쟁을 벌였다. 군사 활동은 수십 년 전 사실상 종료됐지만, 베트남 정부는 국가안보와 분리주의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FULRO와 그 후신 조직을 거론하고 있다.

‘데가 개신교(Tin Lanh De Ga)’는 베트남 정부가 개신교 신앙과 FULRO 및 소수민족 자결 요구를 결합한 정치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다. 정부는 이를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 통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인권단체는 ‘데가 개신교’라는 표현이 소수민족과 종교 공동체의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호치민 묘소. ©Jay Karpur/ Unsplash.com

신앙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낙인찍기 위한 용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CSW는 전했다. 정부는 이들 공동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공안부 장관의 자라이성 공식 방문 기간에 이뤄졌다. 현지 당국은 FULRO 관련 인물들을 관리하고 재교육하는 내용의 성(省) 차원의 결의안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보도된 별도의 사건에 이은 것이다. 당시 자라이성 경찰은 바나(Ba Na)족 공동체 내에서 FULRO와 연계된 조직망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 조직이 6개의 하부 조직과 200여 명의 구성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을 기소하도록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FULRO를 재건하고 데가 개신교를 확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CSW의 머빈 토머스(Mervyn Thomas) 대표는 “베트남은 종교 공동체를 다루는 방식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베트남 정부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와 기타 기본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 606-2345, (424) 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사: 11:00 am

주일 3부: 2:00 pm (영어편)
새벽예배: 화-토 (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온리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2부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월-토)

오전 11:00
오후 2:00
오후 7:00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에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종교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백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부,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토요새벽예배 E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 6:30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주일 2부예배 새벽기도 (화-금) 토) 주일 3부예배

오전 8:00 오전 10:30 오전 5:30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서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주일학교 수요성경공부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후 7:30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 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중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주일 2부예배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새벽예배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잔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찬미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개혁 주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개혁 주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아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수요일예배(평일) 오후 7:30
토요새벽부흥회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유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美 무디성경연구소 신임 총장에 릭 멜슨 선출

미국 무디성경연구소(Moody Bible Institute, MBI)가 릭 멜슨(Rick Melson) 사우스웨스트침례대학교(Southwest Baptist University) 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MBI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주리주 볼리바에 위치한 사우스웨스트침례대학교 총장인 멜슨이 이사회 선출을 거쳐 제11대 총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멜슨 신임 총장은 오는 8월 17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지난 6월 30일 7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마크 조브(Mark Jobe) 총장의 뒤를 잇게 된다. 조브 총장 퇴임 이후에는 무디의 수석부총장이자 교무처장인 팀 시스크(Tim Sisk)가 7월 1일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총장 선임위원장을 맡은 무디 이사회의사 마크 플래너리(Mark Flannery)는 “이번 선출은 전국적인 후보자 물색 과정과 많은 기도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플래너리는 “멜슨 총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이자 기독교 고등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이며, 탁월한 모금가이자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춘 검증된 경영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둔 채 복합적인 사역 기관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멜슨 총장은 “아내와 함께 이사회가 보여준 신뢰에 깊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분명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놀라운 사역을 다음 단계로 이끌고 맡게 된 것은 큰 특권”이라며 “무디가 지닌 탁월한 유산을 깊이 존중하며, 그 미래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교육 사명을 더욱 강화하고, 무디 글로벌 미디어(Moody Global Media)의 영향력



릭 멜슨 무디 성경대학 신임 총장 © Moody Bible Institute

을 확대하며, 무디 출판부(Moody Publishers)의 사역을 넓혀 복음을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트침례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멜슨 총장은 머레이주립대학교(Murray State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서던침례신학교(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 학위를, 댈러스침례대학교(Dallas Baptist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그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베들레헴침례교회(Bethlehem Baptist Church)에서 존 파이프(John Piper) 목사와 함께 사역했으며, 워싱턴주 시애틀의 마스힐교회(Mars Hill Church)에서도 목회자로 섬긴 경력이 있다.

앞서 조브 전 총장은 지난 1월 학년도 종료와 함께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며 “새로운 리더십에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경 기자

우크라이나 난민들 160개 교회 개척

유럽기독교선교국제기구(Euro-pean Christian Mission International, 이하 ECMI)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럽 전역에 약 16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최근 보고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ECMI는 보고서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피난이 예상치 못한 복음 전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깊은 고통과 상실을 경험한 우크라이나 신자들이 피난처를 찾은 곳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고향을 떠나 유럽 각국으로 피난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현재도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독일, 폴란드, 체코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ECMI는 이러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단순한 난민 유입을 넘어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CMI의 전략적 파트너십 책임자이자 로잔운동 유럽 지역 공동대표인 짐 메모리(Jim Memory)는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유럽 우크라이나 침례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유럽 각지에서 사역하는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관계를 맺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슬픔과 이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더욱 밝게 비치고 있다”며 “침례교회만 보더라도 지난 4년 동안 유럽 전역에 약 160개의 우크라이나 교회가 세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점점 더 많은 우크라이나 신자들이 자신을 단순한 난민으로 규정하기를



우크라이나 위치.

거부하고 있다”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럽 여러 나라로 보내신 선교사라는 소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ECMI는 이러한 현상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와 비교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전쟁으로 흩어진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도 유럽 곳곳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낯선 나라에 도착하지만, 동시에 용기와 기도, 환대, 복음 전파를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함께 가지고 온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고난을 겪은 이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며 “그들의 증언은 어둠이 결코 마지막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자신계로 이끄시며, 고난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 바꾸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ECMI는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이 단순한 구호와 정적 지원을 넘어 유럽 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각국 교회가 우크라이나 신자들과 협력해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멕시코 복음주의 교계, 성별 정정 허용 법안 반대 대규모 행진



지난 7월 25일 멕시코 치아파스주 투스틀라 구티에레스에서 수백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최근 개정된 성 정체성 관련 민법 조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Social Media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수백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성별 정정을 간소화하는 민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민 행진을 벌였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열린 ‘가치 수호를 위한 대규모 시민 행진’(Marcha Ciudadana por la Defensa de los Valores)에는 지역 교회와 기독교 단체 관계자, 시민들이 참여해 주도인 투스틀라 구티에레스(Tuxtla Gutiérrez) 도심을 행진하며 가족의 가치와 아동 보호를 강조했다.

현지 일간지 엘 솔 데 치아파스(El Sol de Chiapas)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독교 시민단체 아비반도 아 멕시코 AC(Avivando a México AC)가 주최했으며, 치아파스 지역의 여러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행진은 ‘5월 5일 공원’(Parque 5 de Mayo)에서 출발해 중앙공원(Parque Central)까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치아파스주 정부에 민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마리아 이사벨 로드리게스 히메네스(María Isabel Rodríguez Jiménez) 주의원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르코 툴리오 카라스코사(Marco Tulio Carrascosa) 아비반도 아 멕시코 AC 대표는 “이번 행진은 특정 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누구와도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그러나 사회에 특정한 가치관이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에는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행진은 종교를 초월해 가족과 아동을 보호하려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게스 히메네스(Rodríguez Jiménez) 의원도 사전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행진은 정당이나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가족, 무엇보다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치아파스주 의회가 지난 6월 30일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공개 집회다.

개정안은 성인이 의학적 진단이나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 절차만으로 법적 이름과 공식 문서의 성별 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아파스주 의회는 이번 개정에 대해 “개인의 정체성과 평등,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보호, 차별금지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 법률을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음주의 교계는 해당 개정안이 가족과 생명,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최 측은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치아파스주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가족 강화 정책과 ‘가족과 아동 보호의 날’, ‘평화를 위한 국가 기도의 날’ 제정도 함께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국정 운영의 힘은 오직 기도”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루이스 아비나테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압박감을 이겨내는 원동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를 꼽았다고 7월 21일 보도했다.

아비나테르 대통령은 최근 산토도밍고 노르테 지역에서 열린 ‘국제 사역 몬테 데 디오스 호텔 교회’의 새 성전 헌당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카리브해 최대 규모의 기독교 복음주의 시설 개관을 기념하는 이 행사에는 기독교계 지도자, 수백 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미겔 보가르트 목사가 한 국가를 통치하는 압박감을 어떻게 견디는지 묻자, 아비나테르 대통령은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지 매체 엘 카리베에 따르면 아비나테르 대통령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다고 강조했다. 예정된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이 답변은 헌당식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현지 매체 디아리오 리브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며칠 전 대통령궁에서 열린 자신의 59번째 생일 기념 감사 미사에서도 기도가 개인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깊은 신앙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아비나테르 대통령이 참석한 헌당식의 새 성전은 약 4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세워졌으며 7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메인 강당 면적만 약 1만 6천



도미니카공화국의 루이스 아비나테르 대통령 ©Presidency of the Dominican Republic

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완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이 교회는 도미니카공화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의 인프라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사역을 이끄는 미겔 보가르트 목사와 몬세라트 보가르트 목사 부부는 오랜 건축 기간 동안 참여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헌당식에는 아비나테르 대통령과 라엘 아르바헤 영부인을 비롯해 카를리나 메히아 시장, 베티 헤로니모 시장 등 다수의 정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국가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아비나테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독교적 신념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으며 국가 종교 행사와 기독교 단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현지 언론과 교계는 이번 헌당식에서 보여준 진솔한 신앙 고백 역시 그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배경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헌양기도회(미자회주) 오후 8:30
세백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세백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예배 8:00am / 주일 2부 예배 9:30am (각 교육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11:20am (각 교육부 예배)
EM(DSCP) 1부 9:30am / 2부 11:00am
한미청년부 1:30pm / 한미대학부 2pm
수요경배소망장 (신) 7:30pm
세백예배 평일(월-금) 5:30am, (토) 6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 교회를 교회되게 ·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www.dongshi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세백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아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레슬)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세백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미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세백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영성집회 오후 7:30 한미 청년부 주일오후 1:00
세백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세백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세백예배(화-금) 세백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동요문선 삼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세백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u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세백예배(월-토) 세백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세백예배(화-목) 세백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예배(화-토) 세백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가기도회 오후 7:00
토요세백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세백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세백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k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ga.com

美 법무부 “부모의 종교 교육권 침해 불가”

미국 법무부가 연방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부모의 종교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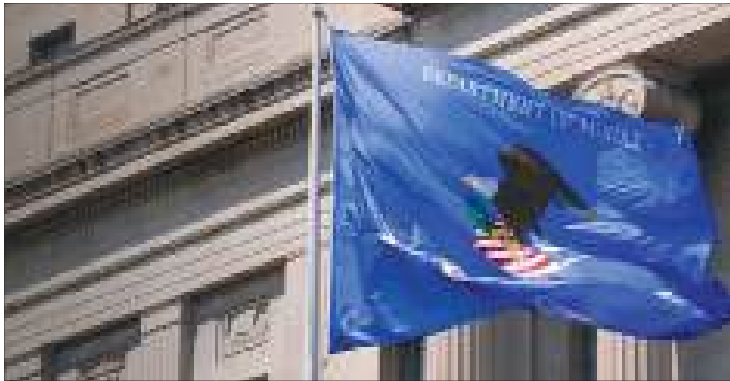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7년 마련된 종교 자유 지침을 전면 개정한 새 지침을 지난 7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모가 자녀의 종교 교육과 신앙 형성을 지도할 권리를 별도의 원칙으로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새 지침은 “정부는 자녀의 종교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의 종교 교육과 훈련을 지도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를 위해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공공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자녀의 종교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장관 대행이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친 직후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상 종교조항과 정교브리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연방 기관에 명확히 제시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의 핵심 원칙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



©미국 법무부

본권”이라며 “모든 연방기관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켈리 샬클포드(Kelly Shackelford) 회장은 “이번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일치한다”며 “연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미국인의 종교적 자유가 존중되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 지침은 지난 8년 동안 나온 주요 종교자유 관련 판례도 새롭게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종교 학교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카슨 대 메이킨(Carson v. Makin) ▲경기장 기도를 이유로 징계받은 미식축구 코치의 종교적 표현을 인정한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동성 커플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것을 거부한 가톨릭 위탁기관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

한 풀턴 대 필라델피아시(Fulton v. City of Philadelphia) ▲동성결 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 제빵사의 손을 들어준 마스터피스 케이크숍 대 콜로라도 민권위원회(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등이 포함됐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성소수자(LGBT) 관련 교육에서 제외시킬 권리를 인정한 마흐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 신앙을 이유로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우체국 직원의 권리를 인정한 그로프 대 드조이(Groff v. DeJoy),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폭넓게 인정한 가톨릭 자선단체 사무국 대 위스콘신 노동산업심사위원회(Catholic Charities Bureau v. Wisconsin Labor & Industry Review Commission) 등 최근 판례도 반영됐다.

아울러 종교자유회복법(RFRA)의 보호 대상이 개인뿐 아니라 일정한 영리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버웰 대 하비 로비(Burwell v. Hobby Lobby Stores) 판례도 다시 확인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권리 보호 범위를 재차 강조했다.

강해진 기자

다초모 목사 “공포가 삶의 방식이 됐다”

→ 1면 기사 <목회자 가족 피살>에 이어서

이어 “가해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기독교인과 기타 취약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치안 강화 조치가 요구된다”며 “미국은 나이지리아 정부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고, 기독교인을 비롯한 모든 나이지리아 국민이 폭력과 박해의 두려움 없이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다초모 목사가 “공포가 삶의 방식이 됐다”며 미국의 개입을 호소한 영상이 도

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 의해 공유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은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초모 목사는 지난 24일 공개한 기도 요청문에서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을을 찾아 신앙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위로하고,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며 “총성이 들리는 밤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역을 멈출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인구 약 2억3천만 명의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교와 기독교 신자가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북부 12개 주는 샤리아(이슬

람 율법)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부는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베누에(Benue), 플레토(Plateau), 카두나(Kaduna), 나사라와(Nasarawa)주를 포함하는 중부 ‘미들벨트(Middle Belt)’ 지역은 두 종교가 혼재하는 곳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매체 ‘트루스 나이지리아(Truth Nigeria)’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북부 지역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다초모 목사의 친인척 9명도 포함됐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목동 칼럼

광야를 지나 실로를 향하여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2023년은 미라클 LA 교회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였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지지하는 교단의 결정 앞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 79%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선택에는 적지 않은 대가가 따랐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에 반대해 온 필자는 교단으로부터 파면되었고, 성도들은 얼마 전 건축한 아름다운 예배당과 모든 교회 재산을 내려놓아야 했다. 2023년 6월 25일, 우리는 그곳에서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린 후 빈손으로 광야를 향해 나왔다. 앞길은 한 치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보다 믿음의 눈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라클 LA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어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의 여정이 어느덧 3년을 맞았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 낸 역사가 아니

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였다. 예배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었다. 다음 세대는 자라났고, 다민족 공동체가 세워졌으며, 비전50 선교운동을 통하여 여러 나라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동역자로 연결되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컸었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완전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사무엘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나 이 고백은 미라클 LA 교회만의 고백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리가 흔들리고 영적 가치가 희미해져 가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하여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성경을 펼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하였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다.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왕의 자격을 배웠으며, 엘리야는 절망하여 쓰러진 로렘나무 아래를 지난 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초대교회 역시 핍박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켰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믿음을 먼저 세우시고, 성공보다 순종을 먼저 가르치신

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이다. 오늘날 우리도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어떤 이는 질병의 광야를 걷고 있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한다. 어떤 교회는 성도의 감소와 다음 세대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있으며, 어떤 목회자는 사명의 무게와 앞이 보이지 않는 목회 현실 속에서 홀로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고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한다.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광야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광야의 반대말은 성공이 아니다. 광야의 반대편에는 실로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 실로에 이르러 회막을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더라.” (여호수아 18:1) 실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는 곳이었고,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장소였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난 것은 단지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중심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광

야를 허락하신 목적은 백성을 실로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과 교회를 위한 실로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실로는 반드시 큰 교회나 화려한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가정의 실로가 될 수 있고, 이름 없는 작은 교회가 실로가 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삶이 실로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며,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오늘의 실로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고, 숫자에 있지 않으며, 재정에 있지도 않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데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이다.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며,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교회이다. 미라클 LA 교회의 지난 3년은 한 교회의 성공담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 주는 작은 증언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교회나 유명한 교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씀을 붙드는 모든 교회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사용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의 실로에 회막을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진유철 칼럼

인내와 날마다의 영성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바램이 생깁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갖는 바램은 좀 더 온전해지는 것,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약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인내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노아는 비 한 번 오지 않는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견디며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인내하므로 가족구원과 새 인류 번성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25년을 인내하여 100세에 얻은 아들이삭으로 민족의 번영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13년 동안 노예생활, 감옥생활 속에서 인내하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80년을 인내하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부음을 받고도 최소 22년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블레셋과

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핸드폰도 자동차도 없던 시대니까 사무엘선지자가 제 때에 오지를 않는다고 그냥 자기가 맘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핑계는 군사들이 동요하고 백성들이 떠나는 것 같아서였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울을 그 마음에서 버리셨습니다. 디지털 인터넷 AI 문화가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은 인내를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동행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그 시간에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트래픽이 심해 시간을 넘기고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점점 마음이 조금하고 급기가 화가 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면서 기다린다면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함

께 하느라 견뎌내므로 인내를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런 인내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팁은 ‘날마다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릇과 같은 존재로 영성은 내가 매일 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매일 술을 마셔야 힘을 얻는다면 알코올 영성이 됩니다. 매일 드라마를 봐야 힘을 얻는다면 드라마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앉으나 서나 스포츠와 오락 얘기하고 또 그런 것에 시간과 물질을 심으면 세상 영성이 됩니다. 매일 인터넷하고 쇼핑하고 주식 하면서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을 얻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영성이 채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뎌내고 이기므로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의 영성’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람!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1976 - 2026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전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All-generations as Disciples of Jesus!”

은혜로 걸어온 50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슈가로프한인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첫걸음을 내디딘 이후 지난 50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과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라는 비전 아래
지난 50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슈가로프한인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일시

2026년 8월 9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

슈가로프 한인교회 본당

담임: 최창대 목사

*50 Years of Grace
A Future with Great Expectation*

예배시간

주일 한국어 1부 예배	8:15am	슈가예꿈(영아부), 슈가예교(유아부), 슈가키즈(유초등부)	11:30am
주일 한국어 2부 예배	9:45am	SKY(중고등부), SSEM(특수교육)	11:30am
주일 한국어 3부 예배	11:30am	수요예배	7:30pm
주일 영어(ES)예배	10:45am	금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화~토)	6:00am



슈가로프 한인교회
Sugarloaf Korean Baptist Church

1664 Old Peachtree Rd. Suwanee, GA 30024



TEL: 770-934-9397



Email: office@skbc.us



https://www.skbc.us



안승호 칼럼

왜 지금 다시 ‘일본 선교’인가: 1%의 벽을 넘어 글로벌 선교의 열쇠로



안승오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선교신학

오늘날 한국교회는 인구 감소와 급격한 세속화, 기독교 신뢰도 하락이라는 가파른 비탈길을 지나고 있다. 교인 수 정체와 젊은 세대의 이탈, 200만 명에 육박하는 ‘가나안 성도’의 출현은 한국교회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냉혹한 경고음이다. 그러나 내부적 위기가 깊어질수록 교회가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 바로 주님의 지상대위임령(Great Commission)인 ‘선교적 사명’이다. 교회가 자기 안위와 내부 문제에만 침잠할

때 선교적 야성을 잃고 쇠락해 간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가장 가깝고도 먼 이웃이자, 세계 선교 지형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시급한 영적 전장(戰場)인 ‘일본’을 다시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세계 4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최첨단 선진국이다. 그러나 영적 실상은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오지(奧地) 중 하나다. 일본의 개신교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0.5%~0.8% 수준으로 ‘1%의 벽’에 갇혀 있다. 선교학적으로 복음화를 2% 미만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외형 뒤에 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전도 종족 국가다. 800만이 넘는 신(神)을 모시는 신도(Shinto) 사상과 혼합주의 문화는 유일신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 하나”로 흡수시켜 버린다. 여기에 심각한 자살률,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문제, 집단주의적 압박감이 낳은 깊은 영적·정서적 고독은 경제적 풍요 속에 숨겨진 현대 일본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현지 교회의 소멸 위기다. 목회자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에서 70대에 달하고, 출석 성도 30명 미만의 소형 교회가 전체의 70%를 넘는다. 담임 목회자가 없어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는 지금이야말로 일본 교회의 영적 맥을 잇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지형적·역사적으로 깊이 연결된 한국교회가 이 시급한 사명지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사적 부르심에 대한 방임이다. 그러나 일본 선교의 중요성은 비단 사명감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본이 복음화되어 영적 리더십을 회복할 때 발휘될 선교적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패스포트 파워(약 190개국 무비자 입국)와 국제적 정치 중립성은 분쟁 지역이나 반서구 정서가 강한 미전도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자산이다. 막강한 경제력과 정부 차원의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능력은 글로벌 구호·개발 선교의 강력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또한 애니메이션, 게임, J-Pop으로 대표되는 막강한 소프트파워는 전 세

계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 특유의 ‘모노즈쿠리(장인정신)’ 문화가 복음 안에서 거듭난다면, 한 번 결단한 성도는 수십 년간 묵묵히 선교지를 섬기는 철저한 사명자로 변모하게 된다. 결국 일본 선교는 단순한 이웃 국가 돕기가 아니다. 역사적 상처를 복음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한·일 양국 교회가 연합하여 동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향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거룩한 통로다. 거대한 세속화의 장벽 앞에서 있는 일본 땅은 한국교회가 둔화된 영적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거룩한 영적 군사로 깨어나야 할 가장 시급한 현장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시급한 사명지를 향해 어떤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어떤 열매와 한계를 남겼는가. 그 엄정한 역사적 성찰이 선행될 때 비로소 시대에 맞는 선교적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가 걸어온 일본 선교의 역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계속>

허용현 칼럼

감각을 넘어서는 인간 이해 ‘하나님의 형상’



허용현 박사
경영학 박사, 시각장애인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다양한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 또는 “눈이 보배”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러한 표현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각이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 주며, 눈의 건강과 시각 기능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의 감각 기능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각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감각을 넘어 생각하고 사랑하며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감각을 넘어서는 인간 이해는 시각장애를 바라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사람의 내면과 삶의 전체 모습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

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깊이 이해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신체적 조건, 가진 능력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으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책의 가치를 표지만 보고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외적인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시선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은 새롭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엄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인간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능력이나 조건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창세기 1:4, 10, 12, 18, 21, 25)고 거듭 확인하시는 모습을 통해 창조의 선함을 보여 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고 선언하시

면서 여섯째 날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자신의 뜻과 지혜에 따라(요한계시록 4:11, 시편 104:24)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엄을 발견해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존귀한 장애를 넘어 한 사람을 바라보다 존중과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길

이 선언은 창조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질서 있게 지어졌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4장 제1항)이 드러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창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인간을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제한이나 어려움은 삶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엄과 가치를 감소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존엄은 신체적 차이나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시각장애는 한 사람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는 인간이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조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지닌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피아니스트 김예지, 클라리네티스트 이상재, 가수 이음복,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아름답게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각장애가 한 사람의 가능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진정한 배려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과 관계를 책임지는 청지기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的一切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해외이사

- 화웨이, 광, 알리사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세계 최초 역노화(Reverse Aging) 기술! 1년 안에 10년 이상 젊어지는 놀라운 기술력! 이제 **북미**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수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TeloYouth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하여 뉴욕으로 확장!
이제 북미 시장을 함께 개척할 리더와 사업가를 찾습니다.

왜 TeloYouth인가?

세계 최초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술 기반 젊음 회복 프로그램

- ✓ FTE(부화수정란 추출물) 100년의 역사
- ✓ 100만 명 이상 젊음 회복 프로그램 경험
- ✓ 수천 건의 놀라운 체험 사례와 객관적인 의료 데이터
- ✓ 12가지 국제 품질 인증
- ✓ 6가지 임상 연구
-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 91% 재구매율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수많은 사람들이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혈당 및 혈압 관리
- 콜레스테롤 관리
- 에너지 및 활력 증진
- 기억력 및 인지기능 향상
- 수면의 질 향상
- 면역력 강화
- 장 건강 개선
- 간 건강 및 신장 건강 관리
- 전립선 건강
- 관절 및 근육 건강
- 근력 및 운동 능력 향상
- 스트레스 관리
- 건강한 체중 관리
- 신진대사 활성화
- 만성 피로 감소
- 삶의 질 향상

6가지 임상 연구

- ✓ 코티솔(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 ✓ 우울감 개선
- ✓ 근력 향상
- ✓ 성기능 만족도 향상
- ✓ 줄기세포 활성화 및 생산 증가
- ✓ 인지기능 향상



LA, NY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비즈니스 기회

AI 혁명에 이어 이제는 **장수혁명 시대**입니다.
건강 산업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거대한 시장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TeloYouth는 뉴욕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북미 시장을 선점할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합니다.
지금이 북미 시장의 **골든 타임**입니다.

NY 디모스연회장

LA 가든스윙트호텔

사람을 살리는 사업
건강을 나누는 사업
미래를 만드는 사업

건강과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목회자, 사업가, 전문직, 리더, 은퇴자,
그리고 더 큰 비전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의

Paul Kim
Chief C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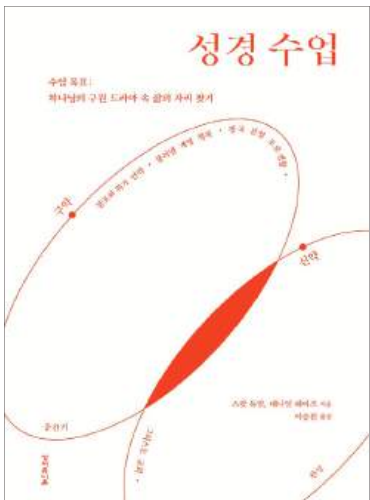
레이첼 코치

☎ 714-732-8477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com
www.teloyouthkorean.com
☎ 714-851-8035

“생명을 살리는 사업, 장수혁명을 이끄는 비전, 이제 북미에서 시작됩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재미와 감동 가득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어떤 드라마보다 재미와 울림 있는 하나님의 실제 구원 이야기



성경 수업: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속 삶의 자리 찾기

스캇 듀발 & 대니얼 헤이즈
이승진 역 | 성서유니온선교회
| 604쪽

이 책은
단순성과 아름다움 사이의
균형을 찾았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라는
관점으로 조망하여,
본문을 성도의 삶에
연결하도록 돕는 지침서.
다양한 저자, 독자, 장르를
지닌 책들의 모음집 성경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한 편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까?

또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스캇 듀발(J. Scott Duvall)과 대니얼 헤이즈(J. Daniel Hays) 두 사람 모두 미국 우치타 침례대학교의 신약학과 구약학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이다. 듀발과 헤이즈는 『성경 해석: 성경을 바르게 읽고 적용하는 실제적 지침서(성서유니온선교회, 2023)』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학자들이다.

『성경 해석』은 『Grasping God's Word』라는 원서의 번역본인데, 이 책은 미국에서도 많은 성경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해석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는 입증된 훌륭한 자료로, 현재 네 번째 개정판까지 나온 상태이고, 성서유니온선교회에서 번역한 책이 바로 최신 개정판이다(2020).

두 사람은 함께 『베이커 성경 핸드북(부흥과개혁사, 2014)』이라는 방대한 성경 공부 필수 자료도 만들었다. 한편 성서유니온선교회에서는 두 사람이 쓴 『성경 설교: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고 전달하는 실제적 지침서(2009, 테리 G. 카터도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성경 실천: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실제적 지침서(2014)』를 각각 출간했는데, 그 중 『성경 실천(Living God's Word)』의 두 번째 개정판을 번역한 책이 바로 『성경 수업』이다.

참고로 『성경 설교(Preaching God's Word)』는 절판됐는데, 아마 2018년 원서의 두 번째 개정판이 나온 것을 언젠가 출판사에서 번역하게 될지 모르겠다.

『성경 수업』은 흥미로운 부제 '수업 목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속 삶의 자리 찾기'가 따라붙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신학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구약학과 신약학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해 구약 개론과 신약 개론을 가르치면서, 듀발과 대니얼은 학생들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개별적 정보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

닫게 됐다.

개론 수업이 줄 수 있는 이점은 분명 있지만, 학생들은 66권 성경이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이룬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책을 저술했다.

창조를 시작으로 완성에 이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독자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한 노력과 배려가 이 책에 참 많이 나타난다.

먼저 이 책의 모든 장을(총 20장) 모두 알파벳 C로 시작해,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다(하지만, 번역하면서 이 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입을 통해 일상 이야기와 예화 등으로 각 장이 다루는 성경책과 주제를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준비' 항목을 통해 본문을 읽도록 권하고, '계속되는 이야기', '연결하기' 항목은 앞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전체 성경 줄거리 안에서 각 장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명한다.

듀발과 헤이즈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 실천하기'를 통해 독자가 어떻게 각 장에서 다룬 주제를 삶으로 실천해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한다. '마무리'에서는 각 장을 짧게 요약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암송 구절', 그리고 '심층 연구'를 통해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각 장엔 '토론을 위한 질문'과 '과제'가 있는데, 만일 독자가 이 책을 학교 또는 교회에서 교재로 사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셈이다.

20장까지 전체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통일된 드라마로 훌륭하게 빚어낸 이 책의 '결론'에서, 두 저자는 독자에게 강력하게 호소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독자를 위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가라고.



▲예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더 초즌(The Chosen), ©ANGEL STUDIOS

우리가 중력을 거스를 수 없고, 혹시 대항한다 해도 결국 그것에 반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역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이야기를 따라 흘러간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엡 1:11)"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역지로서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찾는 길이다.

수업, 그것도 역사 수업은 지루할 때가 많다. 안타깝게도 성경 수업, 게다가 성경 역사 수업도 인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역사는 먼 나라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리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 수업』은 즐겁다. 유익하다. 그리고 감동이 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재미있고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허구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다), 모든 성경 수업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학교
Olive Tree Christian Academy

올리브트리 비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다음 세대 영적 리더를 세웁니다.”

올리브트리는 이렇게 교육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문적 역량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통해
책임감 있고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집니다.

신앙과 학업, 인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자기주도 학습 & 창의 융합 교육

차세대 리더십 양성

3470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626-376-3955

uccshine@gmail.com

www.launitedchurch.com/otca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이작 소로의 탁자 정물

독일 정물화 꽃피운 위그노, 상실된 감수성 회복의 길 제시

박해 피해 함께 하나우 지역으로 네덜란드 예술적 전통 이식 핵심 아버지 당대 최고 정물화가 칭송 정교함 창조 세계 응시에서 비롯 당시 과학적 삽화도 도외시 않아 아름다움과 피할 수 없는 부패로 바니타스, 인생의 유한함 일깨워 사물에 깃든 질서 중요성 환기해

브종교적 박해를 피해 마인강 연안으로 모여든 네덜란드 이주 예술가들은 프랑크푸르트와 그 일대를 독일 정물화의 심장부로 탈바꿈시켰다.

이사악 소로(Isaak Soreau, 1604-1645)의 예술적 근간 역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난 망명객들의 공동체, 하나우(Hanau)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의 부친 다니엘 소로는 투르네 출신 위그노이자 프랑스어권 개혁신교회 신자인 ‘왈롱인(Walloon)’이었다. 양모상인이자 건축가·화가로 활동했던 다니엘은 하나우 신도시 건설에 앞장서며 난민들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소로 가문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한 것은 알바 공작(Duke of Alba)의 공포정치와 안트베르펜의 약탈 및 정복 등 가톨릭 세력의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다니엘 소로의 할아버지가 투르네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주를 결심한 이래, 가족 모두가 그곳에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1554년 프랑크푸르트에 최초의 ‘프랑스-왈롱 회중’(French-Walloon congregation)이 설립되었고, 10년 뒤에는 플랑드르와 네덜란드 이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뒤를 이었다.

이 가슴 아픈 이동에는 소로 가문뿐 아니라 뤼벤(Leuven) 출신 예술가 가문인 팔켄보르흐(Valckenborch) 가문도 함께했다. 뤼벤에서 태어나 메헬렌에서 훈련받은 후 박해를 피

해 이주한 이들은 다니엘 소로와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함께 프랑크푸르트와 하나우 지역에 네덜란드 및 플랑드르의 예술적 전통을 이식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 중심에 섰던 다니엘 소로는 당대 최고의 정물화가로 칭송받았다. 다니엘은 하나우를 중심으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는데, 그의 아들 이작 소로와 쌍둥이 형제인 페터 소로(Peter Soreau) 역시 그 제자들 중 하나였다. 이작 소로의 화풍이 차분하고 절제된 경향을 보인다면, 페터 소로의 화풍은 색채감각이 뚜렷하고 바로크적인 풍성함을 드러낸다.

이작은 하나우 화파 특유의 엄격한 도제 시스템 아래에서 과일과 꽃, 곤충의 세밀한 질감을 묘사하는 법을 익혔다. <중국 그릇과 꽃병이 있는 정물>(1635-1638년)을 보면, 도자기에서부터 유리병, 바구니에 담긴 과일과 바닥의 포도까지 섬세한 눈길로 사물들을 포착하고 있다. 포도의 윤기와 뽕나무 열매의 색깔은 그 맛을 암시하고, 톱질, 은방울꽃 등이 담긴 유리잔과 함께 놓인 만력제 시기 중국 도자기는 시각과 촉각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신앙적 경건과 장인적 정밀함이 균형을 이룬 소로 가문의 작업실은 하나우 화파에 있어 심장부였으며, 이작은 이곳에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방법을 습득했다.

1619년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작업실은 다니엘의 수제자였던 세바스티앙 스토스코프(Sébastien Stoskopff)가 인수했다. 이작은 스토스코프의 멘토링 아래 도제 과정을 마치며 하나우 화파 특유의 명징한 구도와 정교한 빛의 처리를 완성해 갔다. 1626년경 그는 안트베르펜으로 향해 야콥 반 홀스돈크(Jacob van Hulsdonck)와 같은 거장들과 교류하며 섬세한 질감 표현을 한층 더 끌어올린 뒤 고향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해 독립적인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30년 전쟁(1618-1648)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작은 붓을 놓지 않고 화업



▲이작 소로, 중국 도자기와 꽃병이 있는 정물, 패널에 유채, 48.8x25.5cm, 1635-1638년.

에 매진했다. 이작 소로의 예술 세계는 네덜란드 전통의 ‘탁자 위의 정물’을 의미하는 ‘방켓(Bancketjes)’ 스타일을 따르지만, 그 이면에는 위그노 특유의 소명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포도알 위의 먼지 하나, 잎사귀의 미세한 잎맥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한 묘사와 붓질 등 현미경적 세밀함을 간직하고 있다.

얇은 유약층을 겹겹이 올려 포도의 반투명한 과육이나 도자기의 광택을 표현했는데, 이러한 공정은 많은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던 위그노적 직업 윤리의 발현이다. 이러한 집요한 제작 방식을 단순한 노동집약적 공정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본래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창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위그노에게 노동은 삶의 양식을 넘어선 신성한 의무였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게으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손발을 주었고 산업을 주었기 때문이다(이상명, ‘칼뱅의 노동윤리’, 기독교뉴스, 2026. 2. 23).”

칼뱅의 노동관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해되었다. 성실하게 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타인을 섬기는 것이자 예배만큼이나 신성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위그노 화가들에게 창작은 노동의 연장이었었고 소명이었다. 화가들에게 사물의 질감을 드러내는 행위는 피조물 속에 깃든 신성을 발견하는 영적 행위였다. 이작 소로의 철저한 사실주의는 부친의 영향뿐 아니라 당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유통되던 게오르크 후프나겔(Georg Hoefnagel)의 ‘아르케티파(Archetypa)’ 시리즈와 같은 정교한 동식물 판화들로부터 지적인 자양분을 얻은 결과로 파악된다.

식물을 비롯하여 뱀, 도마뱀, 개구리, 달팽이, 벌레, 갑각류, 곤충 등 다양한 생물들을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 이러한 과학적 삽화들은 위그노 예술가들에게 피조물을

관찰하는 시선을 제공하며 신앙적 경건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소로 회화의 정교함은 기본적으로 창조 세계에 대한 응시에서 비롯된 것이나 당시 성행했던 과학적 삽화들도 도외시하지 않은 이해의 결과였다. 또한 소로는 탁자 표면을 관찰자 쪽으로 기울여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택함으로써 감상자가 사물 자체에 대해 주목하게 유도하였다. 나아가 네덜란드 바니타스에서 흔히 발견되는 과일 위에 내려앉은 파리나 시들여가는 잎사귀 등은 순간의 아름다움과 피할 수 없는 부패를 암시하며, 인생의 유한함을 일깨우려는, 그 시대가 공유했던 기독교적인 발상이었다.

난민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소로와 이작 소로는 망명지나 다름없는 프랑크푸르트를 독일 정물화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아무리 위그노를 받아들였다 해도,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고 토착민들의 반발과 차가운 시선이 적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차츰 도시의 체질을 바꾸어갔다.

다니엘 소로가 지도한 게오르크 플레겔(Georg Flegel)은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로 성장했고, 세바스티앙 스토스코프 역시 17세기 독일 최고의 정물화가로 평가를 받았다.

또 플레겔의 제자 야코프 마렐(Jacob Marrell)은 아브라함 미농(Abraham Mignon)을 배출하며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정물화의 계보를 이어갔다. 결국 이주 네덜란드 화가들은 프랑크푸르트를 문화적·경제적 번영으로 이끌며 도시의 위상을 크게 올려놓았다.

이들의 정물화는 지금 보면 철 지난 미술처럼 진부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편화되고 본질을 잃어가는 현대 문화의 급류 속에서 사물 하나하나에 깃든 질서의 중요성을 환기하려 했던 소로의 붓질은 우리에게 상실된 감수성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한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이작 소로, 포도가 있는 정물, 패널에 유채, 년도 미상.

“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남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교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美 개신교 목회자들 “교회 인종 다양성 중요” 인식 여전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은 교회의 인종적 다양성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인종 다양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는 2017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로 교회가 과거보다 인종적으로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응답은 증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는 지난해 9월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포인트다.

조사 결과 2025년 응답자의 84%는 “모든 교회는 인종적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이는 2017년 조사 당시의 93%보다 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2017년 조사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열린 극우 백인 우월주의 집회 ‘유나이티드 더 라이트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pixabay

(Unite the Right)’ 직후 실시됐다. 당시 신나치주의자가 차량을 군중으로 돌진시켜 맞불 시위 참가자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종 문제가 미국 사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전 조사에서는 2013년 86%, 2021년 88%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인종 다양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대표는 “여

러 차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7년은 예외적인 시기로 보인다”며 “당시 조사 직전 발생한 샬러츠빌 폭력 사태가 일부 목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체 목회자의 5명 중 4명 이상이 일관되게 인종 다양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교회 공동체가 모든 민족과 인종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가치가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 사이에서 강하

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회의 인종 구성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자신의 교회가 “주로 하나의 인종 또는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3년의 86%, 2017년의 81%보다 낮아진 수치다.

맥코넬 대표는 “미국 교회는 오랫동안 거의 단일 민족으로 구성돼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노예제의 후유증, 특정 지역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 그리고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교단들의 역사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설립되는 교회들은 여러 민족과 문화를 아우르려는 목표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학에서 말하는 ‘다민족 교회’ 기준인 최대 인종 집단이 전체의 80%를 넘지 않는 수준에는 대부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단별 차이도 확인됐다.

주류 개신교(Mainline Protes-

tant) 목회자는 복음주의(Evangelical) 목회자보다 자신의 교회가 단일 인종 중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83% 대 75%). 반면 인종 다양성을 교회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는 주류 개신교 목회자의 동의율이 복음주의 목회자보다 높게 나타났다(89% 대 79%).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2022년에도 유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회의 인종 다양성을 목표로 지지하는 목회자의 비율은 2017년 93%에서 2021년 88%로 감소했다.

맥코넬 대표는 당시 “2017년 샬러츠빌 백인우월주의 집회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와 폭력 사태는 목회자들에게 인종 화해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긴박감은 다소 줄었지만, 교회 안에서 인종 간 연합이 실현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회자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美 남침례회, 장애인 사역 강화 나선다

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회(SBC)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교회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애인 사역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남침례회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장애인사역태스크포스(Disability Ministry Task Force)가 제안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교단 지도부는 이를 통해 각 교회가 장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 지침에는 장애인 사역 전문 인력 채용, 주(州) 침례회 차원의 특별사역 지원금 제공, 신학교의 장애인 사역 관련 교과목 개설, 국내외 선교부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도 자료 개발 등이 포함됐다.

태스크포스 위원장이자 메릴랜드·델라웨어 침례회(Baptist Convention of Maryland/Delaware) 총무인 톰 스톨(Tom Stolle)은 지난 2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각 권고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톨은 “남침례회 교회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주 침례회와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에 위치한 남침례회 총회 본부. © 구글맵

협력해 지역·국내·해외 선교를 함께 감당한다”며 “주 침례회가 교회에 교육과 자료, 네트워크를 제공하면 장애인을 포용하는 사역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폐증과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스톨은 북미선교부(NAMB), 국제선교부(IMB) 등 교단 기관과 각 주 침례회가 관련 자료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장애인 사역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교회들이 이러한 사역을 받아들이면 많은 삶이 변화될 것”이라며 “먼저 시작한 교회들을 본 다른 교회들도 뒤따르게 될 것이

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은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 사역 체계가 남침례회 역사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에는 교단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장애인 사역 지침이 없었다”며 “장애인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필요한 자료나 협력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단 기관과 주 침례회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섬기려는 마음이 실

제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자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톨은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며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었다면 교회에도 반드시 중요한 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한다”며 “예수님은 장애인을 보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며, 치유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셨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애인 사역 체계 마련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장애인 사역 단체 ‘조니 앤 프렌즈(Joni and Friends)’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 인권운동가이자 작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Joni Eareckson Tada)가 설립해 이끌고 있다.

스톨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헌신과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조니 앤 프렌즈는 사랑과 끈기

를 가지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 역시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직접 경험했다”며 “앞으로 남침례회 교회들도 장애인을 공동체 안으로 품는 사역을 확대하면서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지역 조니 앤 프렌즈 사역운영 책임자이자 이번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참여한 크리스타 스미스(Christa Smith)는 이번 결정을 “매우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는 “내 아들이 교회에서 온전히 환영받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며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줄 때의 기쁨과, 그렇지 않을 때의 아픔을 모두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침례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 같은 가정에 ‘당신은 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교회들이 결의안 채택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환영받는 문화를 실제로 만들어 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문선영의 머니토크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바꿔서 매달 찾아 쓰고 싶어요!”

문선영씨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72세 미스터 한입니다.

한국에서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뒤 홀어머니와 아들 둘을 데리고 39세에 미국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특성상 캐나다로 왔다가다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저희 어머니가 다 키웠다고 봐야겠죠. 저는 3년 전에 은퇴를 했고 벌써 어느덧 72세이고, 아들 둘 다 모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선영씨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40k 같은 것은 없고 다니언 직장에서 펜션이 있어서 한달에 1800불씩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셜연금으로 3780불이 나오니까 한 달에 5,580불인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지금 그 집 모기지 페이먼트가 한달에 3,200 정도 됩니다. 5,580불 정도 받아서 세금 내고 여기에 모기지 내고 하면 생활이 좀 빠듯합니다. 집을 팔고 싶지 않은 이유는 집이 너무 편하고 어머니와 추억때문에 저는 계속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군인인 큰 아들이 샌디에고 사는데 저에게 오라고 하는데 저는 꽤 귀찮는 것도 싫습니다. 제가 생명보험을 미국 오자마자 애들을 위해서 하나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얼마전에 서야 찾아 보니까 사망하면 29만불이고 지금 취소해도 29만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29만불은 별로 필요한 돈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29만불을 찾아서 혹시 어뉴이티를 가입할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에서 찾아서 어뉴이티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생명보험으로 옮길 수 있는지, 옮길 때 세금은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어뉴이티에 29만불을 찾아서 넣으면 내년 부터 찾아 쓰면 얼마씩이나 나올까요? 문선영씨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들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선생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커서 정말 좋네요. 이제 선생님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되는데 지금 집을 파실 생각은 아니시고 생활비는 더 필요하신데 현재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이 있으시다는 상황이에요.

일단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에 넣을 수 있느냐?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여러가지 베네핏 때문에 사망하실 때 까지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지만, 만약 사망보상금으로 남겨 주는 것보다 현재 내가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경우 생명보험에 있는 캐쉬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겨서 나의 은퇴로 이자 받아 찾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보험에 있는 캐쉬밸류를 가지고 어뉴이티로 바꿀 때, 만약 이제까지 생명보험에 부은 프리미엄

보험료가 현재 캐쉬밸류 보다 더 크면 그냥 생명보험을 취소해서 이것을 서랜더라고 하는데 찾아 버려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보험료 낸 것보다 캐쉬밸류가 더 자랐다면 생명보험을 취소하고 돈을 찾으면 그때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생명보험에서 돈을 직접 찾지 마시고 생명보험에서 어뉴이티로 넘어가도록 서류 진행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선생님이 생명보험의 29만불을 내년 부터 고정으로 찾아 쓰신다면 일년에 최소 26,518불씩, 한달에 2,209불까지 100세까지 혹은 사망하실 때 까지 \$715,988 까지 평생 나오는 어뉴이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롱텀케어 상황이 되실 때 때때로 나오는 것까지도 포함되는데 더 자세한 상담과 플랜은 앞으로 30년을 함께 할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앞으로 30년 여러분의 은퇴와 재정계획을 책임짐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시원하게 준비한

8월의 은퇴 세미나

스트레스 없이 시간적 여유를 즐기며 평생 넉넉히 쓰고도 롱텀케어때조차도 흔들림 없는 나의 은퇴

미국 이민 1세대 여러분이 두려워 할 특권을 쟁취드릴것입니다

예약문의는 626-827-9599

라팔마

10 MON 10:30AM

은퇴의 필수 아이템, 어뉴이티의 모든 것 401K, IRA, TSP, 은퇴의 CD,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세리토스

13 THUR 6:30PM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연말인정 4%씩 매달 찾아 쓰고, 집값 오르듯 내 돈도 오르고 11306 E 183 RD ST. CERRITOS, CA

엘에이

15 SAT 10:30AM

100세 은퇴와 롱텀케어 장수와 롱텀케어의 시대, 내 재산과 롱텀을 동시에 해결 3435 WILSHIRE BLVD. 14FL, LOS ANGELES, CA

샌디에고

20 THUR 10:30AM

100세 은퇴와 롱텀케어 장수와 롱텀케어의 시대, 내 재산과 롱텀을 동시에 해결 7825 ENGINEER RD. 201, SAN DIEGO, CA

라팔마

27 THUR 6:30PM

100세 은퇴와 롱텀케어 장수와 롱텀케어의 시대, 내 재산과 롱텀을 동시에 해결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DIRECT PAY PROGRAM 핵심 혜택



**최대 40%
현금 환급**

설치 비용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세금이 없어도
OK!**

비영리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



**전기요금
절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운영 예산
부담 감소



**친환경 &
ESG 실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상담받고 최대 40% 절감혜택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10만 불짜리 솔라 공사를
**실제 6만 불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40% 다이어트, 효과는 100% 그대로!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L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 T S
SOLAR
DESIGN**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213-500-8000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 전문 엔지니어 상담

☑ 맞춤형 설계 & 시공

☑ 정부 인센티브 최대 활용

☑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